

##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

강 버 들<sup>†</sup>  
(부경대학교)

### A Case Study on Programs of Policy Research School for Free Learning Semester

Beodeul KANG<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research aim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present implications and supplements in policy research middle school which has implemented free learning semester for 3 years from 2013 to now, through identifying and analyzing education program.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needed to generalize career education programs. I was required to make a specialized program which was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of school and community rather than department-store-like program. Secondly, in considering career development stage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seemed that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was suitable for second grades. Thirdly, teacher interns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in order to manage efficiently free learning semester. Lastly, it was needed to develop a specialized program for career education through studying with expert groups.

**Key words :**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Research School, Programs

#### I. 서론

외국의 교육제도 중의 일부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After School, 스웨덴의 진로체험학습,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국가교육과정 도입(2009년), 스포츠클럽 활동의 국가교육과정 편입(2012년), 진로교육의 활성화 마련 등의 다면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창의성,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고등 사고력 등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우리나라 학생들은 2012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수학(1위), 읽기(1-2위), 과학(2-4위) 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OECD, 2014). 그러나 60여개 국가가 참가한 2011 TIMSS의 발표에 의하면, 참가국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과학은 평균 35%, 수학은 평균 26%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는 과학은 평균 11%, 수학은 평균 8%였다. 2012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114%, 미국은 103%인데,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7, badlle@pknu.ac.kr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C-D-2014-1263)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66%였다. 그리고 2012년을 기준으로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이 56%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71%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 높은 학업 성취 수준을 이루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 흥미도는 평균 이하로 낮고, 학생들의 행복 지수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12년 11월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과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의 운영을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지식과 경쟁 중심교육에서 자기 주도적인 창의적 학습과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의 미래지향적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실시를 통해서 공교육의 변화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013년 4월에는 전국의 42개교에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811개교(21%)가 참여를 하였다. 2015년에는 2301개교(72%)의 학교가 운영을 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전국의 3,190개교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

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Park. lawmaker data, 2015)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기초 단계로 실시된 정책연구학교 중 하나인 지원중학교(가칭)는 201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학교들은 효율적인 확산을 위한 모델학교로서 정책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중학교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연구학교로서의 시사점과 보완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정책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정책연구학교로서의 보완점과 제안점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도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된 42개교 중 하나인 지원중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학교는 2014년과 2015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책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보고서(2013 R)와 2014년 보고서(2014 R)를 대상으로 하였다(1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포함). 42개교 중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본교가 자유학기제 시작 단계부터 3년째 계속 참여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 U광역시에서 주최한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운영 발표회를 열었으며, EBS 다큐 ‘자유학기제를 아십니까’에 본교의 사례가 소개 되는 등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중학교의 2014학년도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위한 자율적 체험활동과 협력학습 중심의 수업방법 적용 방안과 평가 모형 연구’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안 구안 및 적용,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교에서는 이들 세 가지 과제와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 운영 협의록, 연수물 등을 연구학교 자료실에 탑재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알림방에는 체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탑재하고, 활동 모습란에는 신문, 방송 및 뉴스 보도, 활동 모습 등을 실었다.

연구자는 2015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와 지원중학교를 직접 방문(2015년 2월 6일)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의 개요’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두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과 4월, 정리된 자료를 전문가팀에게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이 보내온 의견을 근거로 하여 자료 수정 작업이 e-mail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정,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수시로 e-mail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요청하고, 답변을 받았다. 추가 질문은 심층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문가팀은 2명의 교사(A교사, B교사)와 3명의 교수(C교수, D교수, E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A교사는 사회를 전공한 정책연구학교 수석교사이며, B교사는 과학을 전공한 정책연구학교 교사이다. C교수는 교육학 전공자, D교수는 과학교육 및 융합교육 전문가, E교수는 융합교육과 창의성교육 전문가이다. 교사 전문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교사 중 각각 1명씩 선정하였으며, 교사 중 한 명은 교사들의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수석교사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정책연구학교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이다. 교수 전문가를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사범계열 학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강의는 교육학 전공자나 통합교육과정 전공자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Ⅲ.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와 특징

지원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운영 대상은 1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이다. 운영 시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이다. 자유학기제 실시 시기는 1학년 2학기 때 실시하였다. 운영 조직은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총괄 기획(연구부), 교육과정(교무부, 생활지도부), 환경조성(학년부, 환경부), 진로프로그램(진로부), 평가 및 검증(정보부)로 구성되었다. 진로부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컨설팅은 수석교사가 맡았다. 시도기관으로는 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었으며, 자문기관으로는 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지원중학교는 지원중학교만의 특징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평가 방안의 구안·적용,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

해 자유학기제 추진협의회, 교과협의회, 교사 연구회, 학부모지원단을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자유학기제 추진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및 평가목표의 설정,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방안 에 대한 협의, 평가방안 강구, 진로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운영을 위해 활동하였다. 교과협의 회는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추진 및 협력학습 이 수업 방법 개선과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조직 되었으며, 교과별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교 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모색 하여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연구회는 자율적 체험활동 및 협력학습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활동 을 하였다. 학부모지원단은 체험활동 시 효율적 이고 안전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였으며, 동아리프로그램 운영 시 학부모지원단 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정의 편성 및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운영하였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공 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공 통과정(기본교과)은 국어(4시간), 도덕(2시간), 사 회(3시간), 수학(4시간), 과학(3시간), 체육(2시간), 영어(3시간), 중국어(1시간)로 총 22시간을 운영하 였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3시간), 동아리(4시간), 예술(2시간), 선택(2시간) 프로그램으로 총 11시간 을 운영하였다(<Table 1> 참조).

지원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모형은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중점 모형이며, 기본교과(66.7%), 동아

리활동(12.1%), 진로탐색(9.1%), 기타(12.1%)로 편 성하여, 진로탐색 활동과 진로(SCEP), 동아리 활 동 위주의 자율과정을 운영하였다(<Table 2> 참 조).

<Table 2> Free learning semester model

day time	Mon	Tue	Wed	Thu	Fri	Sat
1	common course					after school (self-control course)
2	common course					
3	common course					
4	common course					
5	SCEP		option program	club	club after school	
6	career search	art	after school			
7						

B교사: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을 유연하게 편성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들이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학 기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육과정에 효 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 을 기획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 수·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의 보급이 쉽게 있도록 자유학기제 홈 페이지 (<http://freesem.moe.go.kr/>)를 통하여 자료가 공유되 고 있습니다.

C교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한 모형은 진로탐색 중점 모형, 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 점 모형이다. 그런데 <Table 1>과 같이 본교의 모 형은 진로탐색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 학생선택프 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백화점식의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경험의 취득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전문화나 교사의 부담 가중 측면에서 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Table 1> Free learning semester curriculum

division		common course											self-control course					
subject		korean language (K.L)	ethics (E)	social studies (S.S)	math (M)	science (S)	physical education (P.E)	english (E)	chines characters (C.C)	chines language	health	sum	art		career	club	option	sum
													music (M)	fine art (F.A)				
lesson no.	before	5	3	3	4	3	3	3	1	1	1	26	2	1	1	1	0	31
	after	4	2	3	4	3	2	3	0	1	0	22	1	1	3	4	2	31
	+,-	-1	-1	0	0	0	-1	0	-1	0	-1	-5	-1			+7		+6

B교사와 C교수의 언급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주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뿐 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나열보다는 학교 특성, 학생의 수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중점 프로그램의 선정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1) 공통과정

수업시간표는 공통과정의 경우에 Co-teaching 활용 융합수업, 예술수업 등 학생 참여중심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록타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으로 운영하였다.

2) 자율과정

(가) 진로탐색프로그램

진로탐색은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인식 함양과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Career search program

No	program title	class no.	note
1	career search reading program	8	Mon. 6, 7
2	career search program	20	
3	career crash course program	4	
4	professional career man meeting	2	
5	SCEP lesson	17	Mon. 5

진로탐색 독서활동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관련 도서를 읽어오게 한 뒤, 독서기록장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 기록하기(9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광고 포스터 만들기(11월), 진로 관련 퀴즈 만들기(12월), 마인드 맵 작성하기(2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은 블록타임으로 구성되었으며, 6교시는 자아탐색활동(예: 나의 소개), 7교시는 진로탐색활동(예: 경호원)으로 이루어졌다.

진로탐색활동은 경호원(8월), 국제회의 기획자(9월), 바텐더(9월), 사회복지사(9월), 쇼핑호스트(10월), 인테리어 디자이너(11월), 영양사(11월), 여행상품개발원(12월), 커피매니저(12월), 동물미

용사(12월) 등이었다.

진로특강프로그램(11월)은 작가를 초청하여 ‘진로,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전문적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스스로 꿈과 희망을 찾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A교사: 운영결과 학생들은 전문적인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고자 하는 진로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호원 등 10가지 특색 있는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10가지는 교사연구회에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블록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교수: A교사가 특색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호기심을 일으켰다고 한 것처럼 특색 있는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10가지 영역을 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활동 영역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관심 영역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은 농협직원, 신문기자, 경찰, 세무사, 인터넷 쇼핑몰 CEO, 네일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국제변호사, 소방관, 사업가 등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 직업인이 멘토가 되고,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시간이 되었다.

B교사: 학생들은 진로탐색 수업 후 개인별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진로에 대한 탐색, 체험단계를 거쳐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간접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다각도로 진로를 탐색하여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산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고, 강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만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D교수: 교육청 차원에서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면 B교사가 언급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B교사가 이야기 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 가능한 요인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강사 인력풀을 준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D교수의 의견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Press release, 2015)에 의하면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문체부와 여가부 등의 협업을 통하여 진로체험처를 확대 발굴하며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 기관들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수업은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B교사: 여기서 SCEP는 기개발 되어 교육부에서 보급하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적인 진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U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116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00%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4년 기준 전체 중학교의 3,190개교 중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될 학교는 2,973개교이므로, 약 93.2% 중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문적인 학생진로지도를 할 것이다((Press release, 2013). 전 중학교로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확대 배치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의 강화와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 예술프로그램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블록타임(화요일 6,7교시)으로 운영하였다. 음

악과 국어, 음악과 과학, 미술과 수학, 미술과 연극 등 교과간 연계 융합교육으로서 ‘예술교과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체적인 학습을 실시하였다.

A교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서 융합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함양되었으며, 더불어 인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음악과 미술교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간 융합 수업 주제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D교수: 음악과 미술을 연계한 예술교과융합프로그램의 기획은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교과간 연계 융합교육면으로 볼 때는 음악과 미술교사들로만 운영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팀티칭 형태로 주제 선정, 지도안 작성, 수업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관련된 교사(국어, 과학, 수학 등)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으며, 좀 더 전문성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수업은 2시간 블록타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티칭이 가능할 것입니다.

D교수의 의견처럼 팀티칭이 융합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팀티칭의 경우는 시간표 조정 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또한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학생선택프로그램

학생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끼와 흥미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과 연계된 교과 심화프로그램을 총 9개를 개발하여, 매주 수요일 5, 6교시에 운영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Student option program

No	program title	subject
1	Global leader! Model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language
2	What is NIE?	social studies
3	Ethics NIE in social problems connecting	ethics
4	STEAM Math	math
5	Math world with paper work	math
6	Sports history + Movies	physical education
7	Opera reading	music
8	Exciting rhythm	music
9	I'm chines characters doctor	chines characters

학생들은 학기 초,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해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통해 학생 당 한 학기에 3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B교수: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학생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향상되고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E교수: 학생선택프로그램은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체육, 음악, 한문 등 7개의 교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교과는 12개인데, 7개 교과만 운영한 데에는 나름의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과학, 영어, 미술 등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군을 골고루 배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교수의 지적처럼 학생들의 재능과 성향이 다양하므로 교과군을 골고루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팀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의 확산을 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행복 찾기’ 진로탐색 동아리 운영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Table 5> Career search club program

No	program title	contents
1	With Newton	science search
2	Borgul borgul chef	cooking
3	Small world	constructing
4	I'm computer doctor	computer
5	I love art	art
6	Exciting guitar	guitar
7	I'm cartoonist	drawing
8	We are girls generation	dancing
9	Master mind	industrial arts
10	Chattering of films	movie
11	Aphrodite	design
12	I'm entertainer	play

진로 탐색동아리 활동은 매주 목요일 5~7교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은 매주 금요일 4교시에 실시하였다. 1차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홀랜드 유형에 따른 동아리 수요 조사를 하였고, 2차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희망 동아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12개의 동아리를 운영하였다(<Table 5> 참조).

A교수: 한 동아리 당 20명이 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홀랜드 검사와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하여 동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사회성이 함양되었습니다.

C교수: 1학년 학생들은 총 185명(남학생(103명), 여학생(81명))으로 12개의 동아리에 각각 평균 16명 정도 배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수의 인원인 탓에 밀도 있는 수업의 진행이 가능하게 한 점, 홀랜드 검사와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학생들이 활동할 동아리의 선정 등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 교육공동체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내 홍보 및 연수활동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마인드를 제고하였다. 이를 위해 TF팀 협의회 11회, 연구학교지원단 협의회 3회로 이루어진 내용을 학생연수 4회, 학부모연수 5회, 교사연수 4회(외부연수 1회, 교내연수 3회)를 통해 교육시켰다. 그리고 연구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6회에 걸쳐 지원중학교에서 부산(50명), 울산(46명), 경북(5명), 경남(37명)의 교사와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 및 수업 공개를 실시하였다.

C교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하여 타 지역의 교사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와 공개 수업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연수뿐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 연수 후 피드백

을 통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좀 더 활발한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연구학교인 만큼 찾아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현장 연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확산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 2.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구안·적용

가. 꿈과 끼를 찾아주는 교수학습방법 구안·적용

Co-teaching 융합수업 및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를 통합하고, 교과 당 Co-teaching 융합수업을 2회 이상 실시하였다(<Table 6>참조).

<Table 6> Co-teaching career search program

topic	subject	content
problem solving	K.L	model international conference
	S	causes and solution of global warming
human rights	S.S	human rights and democracy
	E	human dignity
unification	F.A	care with pictogram
	E	care and service
ecological life	E	between nature and human
	S	climate change
calligraphy	K.L	subjective poem reading
	F.A	calligraphy
democracy	E	human dignity and universality
	S.S	development of democracy
simulated election	S.S	election learning on role player
	F.A	election brochure
variety of culture	E	world dishes
	S.S	self-culture learning
graph application	S.S	social population problem
	M	population problem research of statistic
optical illusion	M	optical illusion of compass and ruler
	F.A	optical art
popular music	M	world popular music
	S.S	character of popular culture
music in life	M	music expression in life
	K.L	poem and poetry expression

A교사: Co-teaching 융합노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월 1회 융합주관을 두어 수업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수업에 대한 흥미

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층 도서관 앞에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수업 결과물을 전시하였습니다.

D교수: 진로탐색동아리프로그램은 국어, 과학, 사회, 도덕, 미술, 영어, 수학, 음악 등 8개의 교과로 구성되었습니다. 1학년 총 교과는 12개인데, 이런 방식의 구성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학년의 경우 남학생(103명)이 여학생(81명)보다 인원수가 더 많으며, 특히 남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로교육인 만큼 교과교관을 골고루 배분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아우르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수업 개선을 위하여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단순히 한 학기의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로탐색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구안·적용

수업 전개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인식하고 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단위별로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Table 7>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Table 7> Subject career element(example)

subject	month	unit	career research element
math	9	IV. statistics	statistician
	10	V. figure	artist, designer
	11	VI-1. plane figure	city engineer, surveying engineer
	12	VI-2. solid figure	geologist, engineer
music	9	music in video clip	movie musician, singer
	10	peaceful music	instrumentalist, composer
	11	healing music	music therapist, producer
	12	music in life	producer

E교수: 교과수업과 진로교육의 접목을 시도하는 <Table 7>과 같은 작업은 학생들의 진로를 교과에



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중요한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교과에서 진로탐색요소를 찾아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한 본교의 방법은 체계적이고 일반화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된다.

다. 변화된 수업방법에 적합한 평가방법 구안 적용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으로 중간과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미 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결과를 고입에는 미 반영 하기로 하였다. 성취 수준의 확인 방법은 본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구안하였다. 평가는 수시로 하고, 평가방법은 인지적 평가, 정의적 평가, 학생 자기 성찰 평가, 동료평가 등이 있다. 인지적 평가는 각 교과 담당교사가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반별 파일에 보관하고, 정의적 평가는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시간 마다 학생의 특이사항을 ‘수업 성장 기록지’에 기록하는 것이다. 학생 자기 성찰 평가는 각 과목별 대단원이 끝날 때 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평가한 내용을 융합노트에 기록하였으며, 동료 평가는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한 모둠 활동의 내용을 모둠 평가지에 스티커 부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B교사: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얻은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서술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각 반의 담임교사는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생별 성취 수준을 모아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가정으로 발송하였습니다.

A교사: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각 학생별로 성취 수준을 모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일은 과중한 업무의 증가로 이어져서 정책연구학교의 교사들 중 1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피드백을 반겨하더군요.

C교수: 1학년 담임을 기피한다는 A교사의 진술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증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C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사의 업무 증가는 교사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이미 1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인턴교사의 채용, 교과 시간강사의 활용 등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가. 체험중심의 ‘행복진로캠프’ 운영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춘 올바른 진로 의식 고취, 자아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 자아존중감 증대를 위하여 진로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음 열기, 나와 우리 이해하기, 자신의 내면 분석, 긍정문의 원리. 환경 가꾸기, 꿈에 대한 진실, 나의 꿈 나의 목표, 꿈을 이루는 마법의 열쇠 등 3일 동안 총 9차시를 운영하였다. 마지막 3일 째에는 각 반별로 소감문을 작성 한 후, 소감문을 발표하는 ‘행복진로캠프 소감문 발표대회’를 실시하였다.

B교사: 학생들은 진로유형검사에 의한 자아탐색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습과 미래의 직업 선택과의 관계, 교육적 정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감문 작성을 통해 캠프 활동을 정리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로학습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직업 세계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복에 대한 정의와 합당한 기준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로유형검사 실시, 마음열기, 나 이해하기, 나의 꿈, 꿈을 이루는 마법이 열쇠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이 학교 교사들의 열정이 보인다. 이처럼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와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은 ‘테마별 진로직업체험의 날’과 ‘일터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테마별 진로직업체험의 날은 다양한 직업체험에 대한 전문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학교와 인접한 진로체험관(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당 직업의 업무를 직접 체험활동을 통해 경험하였다. 이러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1h), 직업체험(9가지 유형; 2h), 진로선택 연극(2h), 소감문 작성(1h) 등으로 운영되었다.

A교사: 학교와 인접한 진로체험관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활동이 되었어요. 바리스타, 보컬 트레이너, 응급 구조사, 소품 디자이너, 요리사, 특수 분장사, 아나운서, 심시 상담사, 방송 MC 등 다양한 직업의 체험과 연극을 관람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구요. 특히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동아리활동을 통한 꿈과 끼,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터별 체험프로그램은 타 학년 기말고사 기간을 이용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후, 희망에 따라 체험 장소별 반을 편성하고, 체험 장소로 나누어서 활동하였으며, 우드 아트 소방서, 옹기 장인체험, 방송국, 연구소, 한국방송연극연화예술원, 요리학원, 미술 갤러리, 미용학원, 내 부모 직장 체험 등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 제공 및 개인 소질과 적성 이해를 통한 ‘맞춤형 1인 1꿈 갖기’ 행사였다. 특히 내 부모 직장 체험은 OO발전소(봉사단체), OO자동차. 커피숍, OO기업, OO가구 업체, OO어린이 집 등에서 부모와 함께 직업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A교사: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되었으며, 꿈과 희망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 받았어요. 특히 부모님과 같이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직업과 노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D교수: 본교는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내 홍보 및 연수 활동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되어 자유학기제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D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홍보자료의 제작과 배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중심의 다양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관련 단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각종 대책과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율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율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은 꿈 나래 UCC 경연대회, 진로프로그램 연계 꿈 찾기 발표대회, 행복 찾기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직업을 Job아라 방송, 진로·직업 체험 안내문 제작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꿈 나래 UCC 경연대회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자신이 찾은 꿈과 진로를 돌아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1학년 당 1작품씩 공동 제작 형태로 만든 UCC를 타 학년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강당에서 대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과 끼를 찾는 내용이나 진로설계, 탐색, 체험과 관련된 내용을 5분 이내의 창작물로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B교사: 운영 결과 자유학기제 동안 자신의 직접적인 진로체험을 UCC로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구체

적인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공동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증가하였습니다.

E교수: 인성요소는 인성 판단력과 인간관계 덕목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인간관계 덕목으로는 정직, 약속, 책임, 배려, 소유, 용서 등이 있습니다. 학급 공동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책임, 배려, 약속 등 인성적인 요소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교의 진로활동은 인성의 하위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인성의 하위요소를 규정한 뒤에 그것을 활동 주제와 연결시키면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험형 진로활동과 관련된 주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인성과 직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E교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 설계 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진로프로그램과 연계한 꿈 찾기 발표대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꿈을 키우고, 삶의 목표를 세워 행복한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회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발견한 자신의 진로 방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진로설계를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활동내용은 자유학기제 돌아보기 코너로 자유학기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각 교실에서 소감문을 작성하고 난 뒤, 모두 강당에 모여 학급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 22명의 꿈 발표를 들었다.

A교사: 발표 후 바로 시상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강화를 주었습니다. 스스로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행복 찾기 진로탐색 동아리활동은 맞춤형 진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애 디자인 능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체험을 통

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생애 설계와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목요일 5-7교시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활용하여 총 6회 운영하였으며, 광역시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매칭시스템을 활용하였다.

B교사: 운영 결과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맞춤형 생애 디자인 능력 신장 및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Job아라 방송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배경지식을 축적하고, 진로탐색의 필요성 및 관심을 제고하고자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직업을 Job아라’를 활용하여 교실로 방송을 하였다. 용접원, 헬스트레이너, 예능 PD 등 총 20종의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A교사: 운영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B교사: 진로·직업 체험 안내문을 제작하고, 진로 체험활동 전에 이를 배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IV.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 1. 연구학교 운영 설문 결과 검정

#### 가. 학생 대상 사전-사후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진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안다’라고 답한 학생들의 사전(37.83%)과 사후(90.00%) 인식 차이는 약 52.17% 향상되었다. ‘자유학기제 운영이 중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하여 사전(73.51%)과 사후(88.42%) 인식 차이는 14.91% 향상되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진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

로를 정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사전(68.10%)과 사후(93.00%) 인식 차이가 약 24.9% 향상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향상되었으며, 자유학기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향상되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이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었다(2014 R).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후의 진로 탐색, 수업개

선,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의 3부분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C교수: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후의 학생의 인식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 설문지를 투여한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첫째, 사전과 사후 설문의 경우는 동일한 문제로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과 사후에 문제가 달라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과 사후의 인식변화를 비교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인데 진로탐색프로그램의 문항 중

<Table 8> Change of student between before and after in free learning semester(person)

division	question content	items						sum	
career research	before	Did you decide a detailed self career?	very(25)	little(70)	normal(22)	few(56)	never(3)	.	185
		If you didn't decide career, why?	unknown job name(5)	uninterested(6)	no time(5)	unknown self (53)	no lesson(5)	guitar(7)	81
	after	Did you decide a detailed self career?	very(84)	little(77)	normal(16)	few(12)	never(1)	.	190
		If you didn't decide career, what program did you affect during free learning semester?	career p.(37)	career activity(94)	career camp(13)	club(39)	option(5)	guitar(2)	190
lesson development	before	What is lesson type to find your dream?(overlap possible)	lesson(25)	discussion(27)	cooperation(46)	practice(88)	project(44)	guitar(16)	246
		Did you learn a career research method during school lesson	very(2)	little(27)	normal(99)	few(45)	never(12)	.	185
	after	If you didn't learn career research method, why?	many lesson(8)	text lesson(56)	test(43)	no career lesson(34)	guitar(15)	.	156
		Did you think variety lesson methods to study at lesson?	very(112)	little(58)	normal(16)	few(4)	never(0)	.	190
career research program	before	What is the best lesson method?(overlap possible)	lesson(30)	discussion(57)	cooperation(70)	practice(109)	project(94)	guitar(6)	366
		Did you find your dream at career research lesson?	very(105)	little(71)	normal(11)	few(3)	never(0)	.	190
		What was an activity to find the career research?	club(85)	career(54)	autonomy(41)	service(5)	.	.	185
career research program	after	What is the favorite career research activity?	expert lesson(24)	activity(82)	career lesson(12)	career reading(3)	aptitude test(28)	career camp(36)	185
		Which is an evaluation to find learning achievement in free learning semester?	formation evaluation(57)	self communion evaluation(84)	performance evaluation(29)	guitar(15)	.	.	185
	after	What is the best useful program in free learning semester?	subject lesson(19)	career p.(42)	club p.(19)	option p.(13)	SCEP(5)	career crash course(22)	190
		What is your different point after free learning semester	career camp(13)	career activity(57)	.	.	.	.	171
career research program	after	What is your different point after free learning semester	dream interesting(84)	test distress(94)	career concern(100)	job world(46)	pleasure(24)	guitar(1)	171
		Which is an evaluation to find learning achievement in free learning semester?	formation evaluation(83)	self communion evaluation(81)	performance evaluation(24)	guitar(2)	.	.	190

학생에게 질문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문항(예: 자유학기제 운영 시 학습의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평가가 적당할까?)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은 차라리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C교수의 지적처럼, 설문지를 작성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제작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설문지를 투여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빈약하다.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중 진로체험활동 만족도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결과를 얻었다(2014 R).

B교사: 교사들의 설문도를 보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 개선(94.10%)도 잘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중 진로체험프로그램(35.64%)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의 진로체험관을 이용하고, 일터별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평가부분에서 교사들은 형성평가(45.00%)와 수행평가(42.50%)가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E교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경우 사전과 사후 검사를 이용하여 전후 비교를 실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본교 교사의 경우는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인식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피상적입니다.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전문적인 설문지 제작과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SCEP 진로 수업에 대한 교사들

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E교수의 언급처럼 교육부에서 보급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운영한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Table 9> Perception of teacher and parents for free learning semester(%)

No	title	content	teacher	parents
1	percep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understanding for free learning semester	98.00	78.00
		necessity of free learning semester	95.05	81.05
2	career research activity	career research	93.24	83.14
3	best career research program	career program	16.32	15.05
		career activity	29.56	35.14
		career camp	8.70	5.04
		club activity	27.40	26.54
		option program	15.02	14.03
		etc.	3.00	4.20
4	lesson improve	lesson of variety method	94.10	80.82
5	satisfaction for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subject lesson of variety method	10.25	10.02
		career program	3.50	6.50
		club program	10.20	13.28
		option program	8.04	4.40
		SCEP career lesson	3.11	8.25
		career crash course	10.20	3.50
		career camp	18.65	14.00
		career activity	35.64	44.05
6	evaluation system for free learning semester	formation evaluation	45.00	15.05
		self communion evaluation	12.50	35.04
		performance evaluation	42.50	49.91

2. 자유학기제 실시의 시사점과 문제점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의 2년간 운영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시사점

첫째,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에서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둘째, 지역 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였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직업인을 멘토로 활용하여 가족간의 유대감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Kim(2013a)

는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  
년제처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수업, 학부모의  
관심과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Hwang(2015)에 의하면 연  
구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수업은 단  
순한 창의체험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  
한 것과는 달리 본교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  
반화할 가치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직접 진로 체험뿐만이 아니라  
간접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특강, 부모  
님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꿈과 끼 이해(84%), 진로에 대한 관심  
(100%)을 높인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Table  
8>참조).

#### 나. 문제점

첫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를 본  
교처럼 1학년에 시행하면 진로탐색에 대한 효과  
가 반감될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진로교육  
의 단계는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인식, 중학교에서  
는 진로탐색,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설계이다. 그런  
데 진로탐색을 하여야 하는 중학생의 경우, 1학  
년은 2, 3학년보다는 아직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  
기에는 다소 어린 나이이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 현황에 의하면, 자유학  
기제가 실시되는 2301개교 중 2211개교(96.1%)가  
본교처럼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lawmaker data, 2015). 이와  
같이 1학년 2학기를 정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대  
한 입시 부담이 가장 적은 1학년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문가 팀의 A 교사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기는 1학년 2학  
기였다고 진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지정학년을 1학년으로 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017학년도부터 중 1 성적을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지필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가 1학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의 중  
1 과정 시행은 업무의 과중이다. 초등학교를 각  
졸업한 중 1과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지도,  
행정 업무에다 자유학기제 수업 준비까지로 인해  
실제로 1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  
다고 A 교사는 진술했다. 일반적인 수업보다  
체험과 활동위주의 수업이 거의 대부분인 자유학  
기제 수업의 특성상, 수요 조사, 프로그램 기획,  
사전 준비, 수업 운영, 안전지도, 평가, 피드백 등  
업무의 가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정책연구학교의 B교사는 “제때 퇴근을 해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셋째, 본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백화점  
식 프로그램으로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4가  
지 모형은 진로탐색 중점 모형, 학생선택프로그  
램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이었다. 본교는 이러한 4가지를 특징을  
I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골고루 모두 사용했다.  
4가지 모형을 아우르는 모형의 적용은 학생들에  
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장점이 있  
지만, 질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려다 보니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진  
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제공도 중요하지만 특화  
된 프로그램으로 심화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설문 문항의 구성과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도 중  
요하지만 운영 후 피드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  
한 전문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의 확  
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3. 자유학기제 실시의 보완점 및 제안점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서 2년간 운영 결과  
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 본 결과로 본 보완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 발달 단계를 볼 때,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2학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의 롤 모델로 제시했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는 중3 과정(주니어 과정)을 마치고, 고2 과정(시니어 과정)에 들어가지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Kim, 2013b). 덴마크의 After school은 공립기초학교(1~9학년)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공부하는 학교로서 전체학생의 약 30% 정도가 희망하여 참석한다. 스웨덴의 진로체험학습의 경우는 기초학교 8,9학년(중2,3과정)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현실상 중 3과정은 고입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학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학기제는 2학년 시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턴교사의 활용을 제안한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을 정식 발령 전 1년 정도 인턴교사로 활용하거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인턴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위한 도움교사의 역할을 하면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이 훨씬 수업과 학생지도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백화점식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Ministry of Education, 2013)한 것처럼 ‘진로학습→진로상담검사→진로체험→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학교특성에 맞는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팀과의 협의를 통한 전문적인 설문지의 작성을 통하여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인하여 2016년에 전국적으로 보급될 프로

그램의 일반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중학교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연구학교로서의 시사점과 보완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중학교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100%),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95.05%),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81.0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백화점 식의 다양한 모형으로의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 발달 단계를 볼 때, 자유학기제의 시행은 2학년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고입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중학교 1학년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턴교사의 활용을 제안한다.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중 학생은 동아리활동(85%), 교사는 진로체험활동(29.56%), 학부모는 진로체험활동(39.41%) 등 동아리와 체험활동을 선호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도움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진로학습→진로상담검사→진로체험→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의 연구를 통한 특성화된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016년에 전국의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특

화된 진로프로그램의 준비가 절실하다.

## References

- Hwang Se-Won(2015). A Study on a Career Education for Free Learning Semester.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iwon Middle School(2013). Policy research school report.
- Jiwon Middle School(2014). Policy research school report.
- Kim Jin-Suk(2013a). Transition Year Curriculum of Ireland. Curriculum Research. 31(4), 165~193.
- Kim Jin-Suk(2013b). Difference of Between Transition Year of Ireland and Free Semester of South Korea. Curriculum Research. 23(6), 163~183.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2008), Career Education Research Report.
- Ministry of Education(2013). 2013 Free Learning Semester Plan.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2014). 2014 Free Learning Semester Report. Ministry of Education.
- OECD(2014). Launch of PISA Financial Literacy Assessment. OECD, 2014. 7. 9.
- OECD(2014). PISA 2012 Results: Students and Money-Financial Literacy Skills for the 21st Century(Vol. VI). OECD, 2014. 7
- Park. Hong-geun(2015). Lawmaker data.
- Press release(2013). Ministry of Education, 2013. 11.
- Press release(2015). Ministry of Education, 2015. 2.

- 
- Received : 18 September, 2015
  - Revised : 02 October, 2015
  - Accepted : 07 October, 2015